

**2017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 | | | |
|----------|--|------|----|
| 지원학과(학부) | | 수험번호 | 성명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창 시절 공부도 잘하고 / 특별 활동에도 뛰어나던 그녀
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도 무난히 / 합격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감자국을 끓이고 있을까
사골을 넣고 세 시간 동안 가스불 앞에서 / 더운 김을 쏘이며 감자국을 끓여
퇴근한 남편이 그 감자국을 15분 동안 맛있게
먹어 치우는 것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입사 원서를 들고 /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을까 ... (중략) ...
다행히 취직해 큰 사무실 한 칸에 / 의자를 두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가끔 찻잔을 나르겠지 ... (중략) ...

저 높은 빌딩의 숲, 국회의원도 장관도 의사도 / 교수도 사업가도 회사원도 되지 못하고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리저리 밀쳐져서 / 아직도 생것으로 굴러다닐까
크고 넓은 세상에 끼지 못하고 / 부엌과 안방에 갇혀 있을까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나) 여자는 처음부터 자기의 자주적 존재와 타자적 존재 사이에서 충돌하곤 한다.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신을 객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 결과 자율성이 부정된다. 마치 살아 있는 인형처럼 다뤄지고 자유를 금지 당한다. 이리하여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왜냐하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파악하며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역시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주체로서의 자기를 확립할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여자아이 역시 활력과 탐구심, 진취적인 기상과 대담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아이를 남자아이와 똑같이 다루는 일은 풍습이 허용하지 않는다. 여성이 뒤집어쓴 불운 가운데 하나는 유년기의 여자아이는 여자의 손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남자아이도 처음 얼마 동안은 어머니의 수중에서 키워진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자아이의 남성다움을 존중하며, 남자아이는 곧 그녀의 손에서 벗어난다. 반면 어머니는 딸을 여성의 세계에 완전히 입문시키려고 한다.

(뒷면에 계속)

(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유리천장은 유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인 천장이 존재하여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막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유리벽은 같은 직급 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여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동일 직급 내에도 승진 등에 유리한 핵심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이 이러한 핵심 업무로부터 수평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주로 가리킨다. 유리벽이라는 표현은 동일 직급 내에서의 남녀 차별뿐 아니라 남녀 간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 등을 이해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 및 양육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를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편견에 더하여, 법률에 규정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직장 내의 분위기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양육 환경 등은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라) <표 1> 성별·연령별 경제 활동 참가율

| 구분 | 경제 활동 참가율(%) | | | |
|----|--------------|--------|--------|--------|
|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 남자 | 63.8 | 93.8 | 94.6 | 89.6 |
| 여자 | 63.5 | 59.0 | 66.5 | 62.5 |

<표 2> 성별·연령별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형태

| 구분 |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
| 월평균 임금(만원) | 남자 | 177.3 | 276.0 | 329.2 | 309.7 |
| | 여자 | 156.7 | 200.9 | 178.5 | 152.8 |
| 비정규직 비율(%) | 남자 | 31.1 | 17.6 | 19.1 | 27.4 |
| | 여자 | 32.7 | 28.6 | 37.3 | 44.2 |

1-1. 제시문 (가)에 나타난 화자의 문제 인식을 제시문 (나)와 (다)의 핵심어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200자±20자) [15점]

1-2.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표 1>과 <표 2>에 나타난 특징들을 설명하시오.
(300자±20자) [15점]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동체란 개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하는 집단을 뜻한다. 공동체주의에서 볼 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컨대 법률은 설득과 강제력을 통해 국민을 하나의 단위에 적합하게 만듦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다. 법률은 국민 모두로 하여금 그들 각각이 공동체에 공헌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갖게 한다. 공동체 전체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인과 개별 집단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유지되고 존속되도록 기여한다.

(다음 장에 계속)

(나) 민주주의는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비판적 논의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 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가 서로 충돌할 때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이 논의를 통해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타협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래서 협상과 타협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독선과 불통을 경험하게 된다.

(다) 민주주의는 처음 출현했을 때 인간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을 추방함으로써 모든 일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정부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들의 민주주의를 모델로 삼고 있었다. 아테네인들은 아고라 광장에 모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웅변가들로부터 다양한 관점의 주장들을 경청할 수 있었다. 물론 반(反)민주론자였던 플라톤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무대 정치라고 비판하였다. 절대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민주 정부가 궁극적으로 권력의 투명성, 즉 가면 없는 권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절대국가에서는 권력의 비밀이나 권위의 은밀성이 새삼스럽게 강조되고, 주요한 정치적 결정이 은밀한 회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비밀을 강요받은 행위는 확실히 부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강한 반발에 직면함으로써 행위 그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라) 초나라의 한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웃집 양을 훔치자 아버지를 관아에 고발하였다. 재상은 소년의 행동이 군주에게는 정직한 것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라 하여 소년을 벌하였다. 공자는 아버지 봉양을 위해 전쟁에서 세 번이나 도망친 노나라 사람을 효자라 하여 높은 자리에 천거하였다. 이에 대한 비자는 재상이 소년을 벌하여 백성들은 간악을 고발하지 않게 되었고, 공자가 상을 주어 노나라 사람들은 쉽게 항복하고 쉽게 달아났다고 평하였다. 한비자는 인간은 이기적이며 간사한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오직 상과 벌로써만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국가의 통치 근간은 개인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과 처벌에 두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하였다.

(마) 국가를 구현하고 있는 입헌적 장치들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수파의 독재를 두려워한 밀은 다수의 독재로부터 사회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대의정부론』에서 가장 좋은 정부의 형태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 밀은 다수의 독재를 방지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개선과 참정권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파의 견해가 대표되어 완강한 소수파가 다수파를 견제할 수 있다면 다수파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타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바) 올바른 집터를 선택하는 것은 꿀벌 집단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꿀을 저장하지 못할 정도로 비좁거나 안전하지 못한 곳에 벌집이 자리하면 꿀벌 집단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꿀벌 몇몇이 아니라 집단으로 움직이는 꿀벌 수백 마리가 집터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꿀벌 집단은 여왕벌, 수벌, 그리고 일벌 약 1만 마리로 구성된다. 집터를 찾는 정찰 임무는 이전에 주변에서 먹이를 찾아다닌 경험이 많은 일벌 약 3백 ~ 5백 마리가 맡는다. 꿀벌 정찰대는 많게는 3십여 개에 이르는 집터들 중에서 최적의 집터를 찾고 집터의 방향을 가리키는 춤을 춘다. 꿀벌은 벌집 표면을 따라 8자로 걷는데 몸을 좌우로 흔들고 엉덩이춤을 추면서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많은 정찰 꿀벌들이 동일한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춤을 추게 된다.

(뒷면에 계속)

이 과정에서 초기에 특정 집터에 지지를 보냈던 경찰 꿀벌들은 더 나은 대안이 나오면 추가 경찰 비행을 통해 그것을 확인한 후에 더 나은 집터로 자신들의 지지를 변경한다. 8자춤을 추며 집터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찰 꿀벌들은 결국 공동 결정으로 최적의 집터를 선택하는 것이다. 꿀벌 집단의 모습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높은 집단 지성을 이루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1.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하여 제시문 (바)가 인간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20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마)의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문 (나), (다), (라), (마)에서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50자±20자) [20점]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의 북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다
수재에 수재(獸災)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의 우울한 눈빛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빠용처럼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그러나 난 그들을 욱하지 못한다

“빠빠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친근감 넘치는 검은 빨데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드가?

(나) ㉡등지는 알을 품어 새끼를 깨우고, 수컷과 암컷이 그 새끼를 먹이고 공부도 시켜, 어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키우는 가정이다. 모든 등지는 자연 속에서 하나의 종(種)으로서의 새가 자신의 거처로 지은 구조물이며, 그 나름대로의 문화와 문명의 측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유지함으로써 생태학적 가치가 보존된 건축물이다. 모든 등지, 아니 모든 동물들의 거처는 언제 보아도 시적이며 아름답고 따뜻해 보인다. 이는 그 건축의 구조가 적어도 생태학적으로 그 주변의 모든 것들과 완벽에 가까운 조화를 유지하면서, 또한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마음의 편함과 따뜻함, 자유로움과 행복함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 계속)

(다) 마삿등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다섯 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썩이에 무참히 헐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 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졌다.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 하노?”

그는 미친 듯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인부의 썩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쳤다.

그것을 계기로 부락민들도 와 몰려갔다. 집달리 일행과의 사이에 별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결국 동팔이와 인부 한 사람이 이쪽 청년들의 편치에 코피가 터졌다.

경찰이 발포를 — 다행히 공포였지만 — 해서 겨우 군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다섯 명을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 집행도 일시 중단되었다. …(중략)…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에 타협한다든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이 갈 길은 아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추모할 때는 늘 이러한 훈계를 듣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강직한 성격도 아마 이런 데서 유래됐는지 모른다.

*집달리: 집행관의 옛말. 법률이나 명령, 재판, 처분 등의 내용을 실제로 행하는 일을 맡은 관리.

(라) 주나라 무왕이 동쪽으로 은나라를 정벌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시호를 문왕으로 추존한 뒤 그 나무 위패를 수레에 싣고 있었다. 이에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간언하기를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다니 이를 효(孝)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하된 자로서 군주를 시해하려 하다니 이를 인(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무왕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그들의 목을 치려고 하였다. 당시 군사(軍師)로 있던 강태공이 “이들은 의인이다.” 라며 이들을 보호해 돌려보냈다. 이후 무왕이 은나라를 평정하자 천하의 제후들은 주나라를 섬겼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다. 주나라의 녹봉(祿俸)을 받으려 하지 않고,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 먹으며 배를 채웠다.

(마)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과 굶주림, 그 속에서도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앞서 간다는 선진국은 한층 더하다. 그들은 침략과 약탈과 파괴와 살인을 한 대가로 얻은 풍요를 누리며, 천사처럼 보이는 악마일 따름이다.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선진과 후진이 없어야 한다. 예배당 문간방에서 십육 년 살다가 지금은 이곳 산 밑에 그 문간방과 비슷한 흙담집에서 산다.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그것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3-1. 제시문 (가)의 ㉠과 제시문 (나)의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단, 제시문 (가)와 (나)의 단어를 활용하시오. (200자±20) [10점]

3-2. 제시문 (마)의 핵심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빠빠용, 드가, (다)의 황거칠, (라)의 백이와 숙제를 평가하되 <보기>의 개념을 활용하시오. (350자±20) [25점]

<보기>

소극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을 향한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적 자유는 사회의 문제에 저항하며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려는 것을 의미한다.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